

♥ 신사임당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10살인 임연지예요.

저는 신사임당님 그림을 어렸을 때부터 많이 봤어요. 신사임당님의 그림은 은은하고 꽃과 곤충들이 재미있어서 모두 좋아하지만, 그 중에서 저는 '포도'

튀어나온 것처럼 생생하고 싱그럽게 표현된 것이 너무 좋아요. 저의 꿈은 시를 잘 쓰는 화가예요.

저는 아직 미술 감각이 뛰어나지도 않고, 미술도 다니지 않아요. 저희 엄마는 제가 화가가 되는데 별로인가 봐요 공부가 제일 편하다며

그냥 공부하라고 하세요. 저는 예술은 영원하기 때문에 저의 시와 그림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마음의 안정과 평화를 느꼈으면 좋겠어요. 제가 신사임당님의 은은한 그림들을 보면 편안해지고 기분이 좋아지는 것처럼 말이에요. 저는 신사임당님을 존경해서 위인전 2~3권 읽었어요. 신사임당님은 못하는 게

하나도 없는 '엄친딸' 이신 것 같아요. 시, 서예, 그림,

모두를 다 잘하셨잖아요. 너무 부러워요. 특히, 남자만

인정받던 그 시절에 자신에 꿈을 위해 열심히 노력한 모습을 존경해요. 저도 신사임당님을 본받아 '화가 위인' 이 될거예요. 저는 신사임당님 두를 이룰거예요.

사람이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지만, 노력을 하면

못할 것이 없다는 걸 믿어요. 지금은 비록